

구세주를 모시면 그 마음이 바로 천국

인간의 탈을 벗어야 하나님이 되고 영생을 얻는다

구세주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슬성신이 내리면 이슬성신이 내리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세주라고 그랬죠? 이슬성신 내리는 자가 구세주요, 또 감로수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생미 룡불이요, 감로해를 들고 나오는 자가 정도령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정도령이 바로 생미 룡불이요, 생미 룡불이 구세주인고로 구세주가 이 세상에 나오면 바로 이 세상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바로 구세주가 나와야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구세주가 나오지 않고서는 하늘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세주 안에 하늘나라 있고 하늘나라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고로 그런고로 구세주가 바로 하늘나라요, 하늘나라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완성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에게 14만 4천의 의에 숫자가 차면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했던 것입니다.

14만 4천이 차는 순간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바로 에덴동산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은 바로 하늘나라요, 하늘나라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논했던 것입니다. 14만 4천이 바로 사람 숫자의 의인인 걸로 알고 있었지만 14만 4천이라는 것은 바로 10이 하나님이고, 4천이 해와 이긴자요, 4천이 살리는 영이 되는 두 번째 아담이 되는 고로 그런고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완성된 자가 구세주가 되는고로 구세주 자체가 바로 회복된 에덴동산이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새로운 말씀

오늘날 여러분은 마음속에 구세주를 모시기만 모시면 그 마음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을 그 마음속에 모셔라" 하는 말이 되고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을 마음속에 모시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먹었다가 되고 생명과일을 먹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생명과일 자체가 바로 영생을 주는 영인데 영생을 주는 영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기신 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구세주 자체가 생명과일이요, 구세주 자체가 바로 영생을 이루는 바로 그 이름 자체가 영원무궁토록 사는 영생이라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구세주 자체가 곧 믿음이고, 구세주 자체가 곧 부활함을 입은 영인 것입니다. 부활함을 입은 하나님의 영이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곧 믿음이고, 생명과일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이 되고고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또 다른 새로운 말을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계 되는 새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마귀를 이기는 말씀, 마귀를 죽이는 말씀, 마귀를 전멸하는 말씀, 마귀 세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기신 승리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놀라운 천기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구세주 조희성님

천국이 지옥, 지옥이 천국

그 천기라는 건 뭐냐면 마귀를 죽이는 비결이요, 마귀 세상을 들러 엮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조금 형편이 펴고 어려움이 없어지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가운데서 움직이면 언젠가는 꼭 지옥을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마귀에게는 이제 지옥이 되지 만 구원을 얻는 이긴자에게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천국이 지옥이요, 지옥이 천국이라는 것을 논했던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인고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

은 사람을 이제 마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골이 아프고 눈이 쭈시는 것입니다. 그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빛이므로 하나님의 영이 마귀를 죽이고로 마귀가 들렸있는 사람은 골이 아프고 눈이 쭈시고 어떤 사람은 구도가 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지옥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늘나라에서는 마귀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고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제단 식구를 만나면 마귀 신이 들린 사람들이 골이 아프고 눈이 쭈셔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승리제단 식구들은 전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

이긴자는 바로 신분별을 분명히 하는 사람인고로 계속해서 승리하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 마귀를 죽이는 방법, 마귀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완전히 제거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고로 오늘날 우리 승리제단 식구들은 마귀가 바로 나라의 주체의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는 것을 알면서 여전히 자존심을 앞세우고 여전히 잘난 척하고 우쭐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지옥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게 마귀인고로 그런고로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나라의 게 마귀인고로 항상 자신을 짓기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바로 천국이 마귀나 죄인에게의 지옥이요, 죄인의 지옥이 바로 의인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종교가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뜨거워서 못 견디는 불구덩이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는데 빛 자체가 불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뜨거워서 못 견디고 영원무궁토록 죽지도 않고 팔팔팔 팔 뛰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 마귀인 사망의 신이 없으므로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마귀가 전멸된 다음에는 뜨거워서 팔팔 뛰지만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사망의 신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사망의 신이 어디에 있냐면 나라의 의식이요, 나라의 의식이 바로 사망의 신인고로 그런고로 나만 버리면 나라의 자존심만 없애버리면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면 승리제단에 나올 수 없어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는 걸 알고 나를 버리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영생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게 되면 그런 마귀새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는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요 마귀사람이 있는 가 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승리제단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승리제단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에 이끌어서 나오므로 이 승리제단에 나오시는 분들을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승리제단 나온 사람들이 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탈을 벗어야 하나님이 되고 인간의 탈을 벗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탈이 뭐냐면 바로 음란인고로 남자는 남자의 탈을 벗어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탈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남자가 여자를 봐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좋아하는 마음도 없고, 이상한 생각이 안 나고, 호기심도 안 나고, 무감각한 상태가 됐을 때 바로 인간의 탈을 벗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1992년 6월 30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환옥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참성경

《2장 이삭의 하나님》

(5)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

(4)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충성된 종

(지난호에 이어서) 이러한 충성스런 종의 행실에서 아브라함의 고매한 인품이 묻어남을 느끼고 리브가의 가족들은 감동했습니다. 브두엘과 그의 아들 라반이 경건한 종의 이야기를 다 듣고, 브두엘이 대답했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어찌 좋다 싫다 하겠습니까! 내 딸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의 명대로 삼으시오. 참으로 오늘에 이르러서야 아버지 나흘께서 생전에 ‘형 아브라함에게 진 은혜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염원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큰아버지 아브라함께서 이곳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실 때, 데라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전부를 아버지 나흘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삼 년째 되는 해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 브두엘은 큰아버지께서 베푸신 재산의 혜택 속에서 자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모친 밧기도 손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된다는 사실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남편 될 이삭을 만나기 위한 리브가의 기나긴 여정 그림 출처: http://tribalstories.weebly.com/g24-rivka-rebecca.html

경건한 종은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필감을 점지하여 주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건넸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곧 떠나겠다고 말하니 리브가의 어머니는 아쉽고 쓸쓸한 생각이 들어, “한 열흘만 딸과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 고맙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어머니의 이 말을 듣

고, “아니요, 어머니. 하나님의 뜻이니 까 지금 떠나야 해요.”하고 말하였기 때문에, 온 식구는 할 수 없이 리브가를 많은 축복 가운데 남쪽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리브가의 어머니는 딸을 무척 사랑하였는지라 그녀의 딸 리브가를 위해서 자신의 몸종이자 딸의 유모인 드보라를 딸려 보냈습니다.

창세기 24장
59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천만인의 어머니 되게 하라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할까이다
61절: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62절: 그 때에 이삭이 브엘라해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로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러

※ 「대적의 성문,과 원수의 성문」: 6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라는 마귀에게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 두 분이 점령당하는 것을 지켜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마귀가 삼위일체 하나님(하나님과 아담과 해와)보다 지혜와 힘이 높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세 분 하나님 가운데 겨우 마귀를 피해 달아난 나머지 한 분 하나님께서 인류 6천 년 안에 잃어버렸던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의 두 씨를 찾아야만 전지전능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나머지 한 분 하나님마저 마귀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신이 위아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서 장래에 마귀를 이기는 구세주가 나와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창22:17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죽음의 문을 부수고 영생하는 천국의 문으로 버림). 한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며느리이자 곧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지 못하는 곳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녀 가족의 입을 빌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까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할까이다(창24:60)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할까이다, 라는 말씀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는 말씀 둘 다 '사람이 이길 수 없' 되리라(고전15:54)는 예언의 내용과 동일하며, 전자의 비유 말씀 두 구절은 후자의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의 말씀보다 수천 년을 앞서서 예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물가의 저분은 누구십니까? 출처: Rebecca meeting Isaac; Julius Schnorr von CAROLSFELD; 1898

(5)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

저녁 무렵 이삭은 조용한 생각에 잠겨 들판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그 들판은 브엘라해로 남쪽에 있으며, 지금 이삭은 브엘라해로이 우물가에서 고개를 들어 낙타 행렬이 한 떼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낙타 행렬 속에 있던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을 보고 낙타에 내려 종에게 물었습니다.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를 맞이하러 오고 있는 저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이신 이삭입니다.” 안젤라

나이 많은 종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집안의 재산과 장자상속을 받을 때 자기 자신도 이삭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창24:36). 리브가가 우물가의 광명한 사람이 이삭임을 알자,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했습니다. 이삭은 열네 살 연하의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로 받았습다.(다음호에 계속)*